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수술 의지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역할

Effects of TV Entertainment Program Exposure on Adolescents' Willingness to Take Cosmetic Surgery: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심재웅¹⁾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Jae Woong Shim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초록: 기존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할수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의지)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용성형수술을 결심하는데 있어 그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과 미용성형수술동의 간의 중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남녀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TV예능·오락프로그램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에 중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에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다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함의가 함께 논의되었다.

주요어: 미용성형수술,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mount of TV entertainment program exposure on the willingness to take cosmetic surgery and the role of the belief of benevolent sexism as a potential mediator between the two variables.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500 high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show that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belief of benevolent sexism played a mediator between the amount of TV entertainment program exposure and the willingness to have cosmetic surgery. However, the exposure to TV entertainment programs did not change high school female students' willingness to undergo the surgery.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only the belief of benevolent sexism appear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ir willingness to take cosmetic surgery.

Key Words: Benevolent Sexism, Cosmetic Surgery, Entertainment Program Exposure, Hostile Sexism

1) 교신: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심재웅 (jwshim@sookmyung.ac.kr)

문제제기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대비 미용성형수술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The Economist, 2013). 그와 같은 미용성형열풍 때문에 ‘성형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TV의 각종 예능·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미용성형 사실을 거침없이 공개하면서 미용성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하기도 하며,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은 물론 여러 입간판을 통해 성형수술을 장려하는 광고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1년 한국에서 미용성형은 새로운 산업이 아니며,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수술을 병행하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The Economist, 2011). 한 일간지에서는 미용성형이 개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정의하면서 “필러성형은 미간, 팔자주름, 목주름 등의 주름성형 외에도 턱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무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낮은 콧대를 높여줘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박두원, 2014). 미용성형의 설득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외국도 역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형외과의사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미국 얼굴미용성형·재건수술학회(American Academy of 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Instagram이나 Snapchat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의 외모를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은 욕구를 지닐 정도로 미용성형수술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조사가 진행된 2012년도와 비교할 때 1년 후에는 코수술, 모발이식,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각각 10%, 7%, 6%씩 증가했을 정도였다. 이 보고서는 미용성형이 주로 여성들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남성들도 역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Git, 2014).

Orbach(2009)는 신체를 둘러싼 최근의 담론을 “신체 불안정화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새로운 광란의 분위기에 둘러싸였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누구도 이러한 신체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신체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가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외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급증하면서 그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TV 시청과 패션잡지 소비량의 증가를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다(우형진, 2008; Crockett, Pruzinsky, & Persing, 2007). TV 시청이나 패션잡지를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미용성형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란 해석이다.

그러면 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가?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시청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물론 대부분의 TV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다른 프로그램보다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더 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토크형식과 사생활에 대한 케묻기 중심의 구성에서 미용성형은 흔한 이야기 소재가 되었다. 한편 미용성형에 대한 의사결정 혹은 긍정적 태도 형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즉,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이러한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 시청자계층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처리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V프로그램 노출과 미용성

형수술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개념을 적용하여 성차별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적이며 노골적 차별을 의미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부드러운면서도 간접적으로 성차별적 의식이 나타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로 구분된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적대적인 성차별주의보다는 차별처럼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심재웅, 조의진, 2009)에서 본 연구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미용성형수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TV예능·오락프로그램과 외모지상주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85년 경향신문에서는 TV에 몰두하는 남편들이 TV에 등장하는 연예인과 자신의 부인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잦고, 이것이 부인들에게 성형수술을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인들 또한 자식들에게 외모지상주의를 갖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강용자, 1985). 1989년 동아일보에도 당시 자녀에게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없애줄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용성형수술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이영이, 1989). 이는 과거에도 매력적인 여성일수록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성공과 인정의 기회가 높다는 고정관념(Hosoda, Stone-Romero, & Coats, 2003)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족에게까지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강요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한국사회를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표현할 만큼 외모지상주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했다(손동우, 2014). 한 기사는 “성형미인 싼고 달리는 서울 시내버스”라는 기사를 통해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버젓이 성형수술광고가 붙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미용성형의 일상화를 비판하기도 했다(이승현, 2013). 무엇보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외모는 단골 소재인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성형수술 경험을 공개할 때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게 된다. KBS2의 “해피투게더”는 연예인들의 성형고백프로그램이라 할 만큼 연예인들의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이상범, 2014).

사실적인 보도내용의 예를 들면, KBS ‘대국민 토크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가수 홍진영에 대해 “홍진영 성형고백, 눈은 집었고 코는 세웠다”라고 제목으로 보도한 스포츠 경향(2013. 4. 30), 개그맨 김지민에 대해 “김지민, 미녀 개그우먼? 성형 전 사진보니..”라는 기사를 게재한 동아일보(2013. 4. 29), 가수 광희에 대한 “광희, 사연 신청자에게 성형수술 꼭 해주고 싶다.”라는 기사를 다룬 스타투데이(2013. 4. 5), 가수 김지현에 대한 “화제의 양악수술, 김지현 성형수술 또..”라는 제목으로 양악수술을 한 이유를 “전환점도 필요했고, 달라지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보니 “거울 속에 딴 사람이 있었다. 요즘은 주변에 내가 김지현임을 해명하고 다닌다.”고 보도한 아시아경제 등 부지기수이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기고를 통해 연예인들의 성형수술이 오래전부터 TV프로그램의 단골메뉴가 되었으며, 사연을 신청한 시청자에게 성형의 기회를 주는 메이크오버(makeover)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능에서 다루어지는 성형이야기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획일화된 미를 조장하는 행위로 자칫 성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박원진, 2013). 한편 미디어 비평자인 ‘미디어오늘’은 IPTV에서 불법적으로 성형 관련 광고를 내보낸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공백의 틈을 타서 사실상 불법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허완, 2013). TV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미용성형 체험기는 청소년들에게 미용성형을 믿고 해도 좋다는 보충수표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신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Reid와 Malone(2008)에 따르면, 2006년 영국에서 발행된 신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1191건의 기사 중 89%가 미용성형이라는 맥락에서 성형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미용성형에 관한 기획기사가 197건 중에서 52%는 전문의사의 직접 인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사가 성형수술의 미용성형 요소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성형수술을 의료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다루면서 시청자들을 속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형수술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신화를 확산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은 사회적 부, 명예, 인기, 좋은 직장, 파트너, 인간관계, 성적 매력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상태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Hosoda 등, 2003). 그 반면에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담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셋째, 개인의 개성이나 인정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신체는 언제나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외모에 대한 거침없는 농담은 이미 프로그램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소위 완벽한 몸매를 가졌다는 여성 연예인들은 서로 자신의 성적 소구력(sex appeal)을 과시하며 남성참가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MBC 세바퀴 프로그램에 대해 한 신문은 “또 여성 연예인들의 섹시 댄스도 여전하다. 스튜디오 한 가운데로 나온 여성 연예인들은 선정적인 섹시 댄스를 추고 다른 출연진은 그녀의 춤에 열광한다. 하지만 나이 어린 여성 연예인의 섹시 댄스에 중년의 남성 연예인들이 환호하고 김구라, 이휘재 등 남자 MC들이 시선을 어디다 뒀야 할지 난감해 하는 모습은 TV를 보는 시청자마저 민망하게 한다.”고 평가했다(이승록, 2011).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TV가 미용성형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형진(2008)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TV드라마 시청이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역시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된 행위 통제가 성형수술을 받겠다는 행위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미용에 특화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도 시청자들의 미용성형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4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Crockett 등, 2007), 환자들의 성형수술 의사결정은 성형관련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 환자들일수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임인숙과 김민주(2012)는 한국의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빅토리’와 ‘다이어트 워’에서 비만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국의 “The Biggest Loser”와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프로그램과는 달리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인 장치를 통해 비만 상태의 신체를 일탈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비만인 여성의 신체는 그들의 멘토로 투입된 여자 연예인들의 신체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경향도 역시 강했다. 이는 한국 외모 관련 프로그램에서 외모에 대한 낙인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결국 외모 낙인에 해당하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만에 대한 낙인을 여성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성인용 잡지인 Playboy지 ‘이달의 모델’ 사진을 1978년에서 1998년까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Katzmarzyk & Davis, 2001), ‘이달의 모델’에 등장했던 여성들의 약 70%가 저체중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이라면 마른 몸매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일수록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비현실적인 신체이미지를 시청하면서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에 빠지기 쉬우며, 마른 몸매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여성일수록 그러한 환상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Mills, Polivy, Herman, & Tiggemann, 2002).

또 인쇄광고에 등장한 여성모델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신체 관련 사진이 남성의 신체 관련 사진보다 훨씬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었다(Hall & Crum, 1994). 연구자들은 미국 TV 맥주광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영복 차림으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TV에서 여성의 신체중심주의(body-ism)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의 탈인간화(dehumanizing)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성용 잡지와는 달리 여성용 잡지의 78%가 외모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lkin, Wornian, & Chrisler, 1999). 여성용 잡지의 25%가 표지에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습관에 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체중을 줄이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었다. 곧 남성용 잡지는 오락, 지식, 취미, 다양한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성용 잡지는 외모를 바꿈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외모지상주의적인 메시지 제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는 제한적이었다. 먼저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지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최근 남성들도 미용성형수술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만을 상대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등 성차를 비교하지를 못했다. 게다가 성형수술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성형수술을 공개하거나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거의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성형수술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성차별주의-미용성형수술 동의에 대한 중개변인

성차별주의(sexism)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적대감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고 측정됐다. 그렇지만 여성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멸시를 받음과 동시에 존경을 받는 존재이며, 남성에 종속적임과 동시에 남성을 지배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심재웅, 2008; Jost & Kay, 2005). Glick과 Fiske(1996)는 성차별주의가 근본적으로 양가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의 성차별주의는 그 근본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권력, 전통적인 성역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경멸적 인격부여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려는 믿음을 의미한다(Glick & Fiske, 1997).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적 남성주의(dominant paternalism), 성별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이며 남성이 사회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경쟁적 성역할주의(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그리고 이성애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의 3가지 관점에 근거한다(안상수 등, 2007; Glick & Fiske, 1996, 1997).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예: 페미니스트는 남자를 완전히 비이성적 존재로 간주한다.)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인정(예: 여자들은 별 의미가 없는 남자들의 말이나 행동도 무조건 성차별적이라 본다. 여자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져도 차별 때문에 졌다고 불평한다.) 등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Burgess & Borgida, 1999).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을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완화된 성차별의식이다(Glick & Fiske, 1997).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표출과는 다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애정을 의미하는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 남성은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으므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보완적 성역할주의(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성애적인 친밀감(heterosexual intimacy)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근거한다(안상수 외, 2007; Glick & Fiske, 1996, 1997).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그리고 긍정적인 톤으로 전달되는 성차별이기에 심각한 성차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남성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소중한 존재로 간주되며, 경제적으로 부양받아야 한다는 여성들의 믿음은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킨다(Sibley, Overall, & Duckitt, 2007).

이 연구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주의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때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여성일수록 외출 시 화장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Franzoi, 2001). 이는 그와 같은 여성이 외출 시 화장을 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성차별을 강화하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성에 대한 악의 없는 성적 유머에 대한 반응을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과 무관하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적 유머가 더 재미있고 덜 불쾌하다고 응답했다(Greenwood & Isbell, 2002). 특히 적대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낮으면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남성일수록 같은 그룹의 여성에 비해 또는 적대적이면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도 낮은 집단에 비해 성적 유

머를 더 재미있고 덜 불쾌한 것으로 응답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여성의 행위가 여성에 관한 사회적 행위규범에서 벗어날 경우 잘못이 해당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Viki & Abrams, 2002). 구체적으로, 기혼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를 접한 집단과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를 접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한 실험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결혼상태가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에 비해서 기혼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는 당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Sibley 등(2007)은 뉴질랜드 여대생을 대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용이 여성들에게서 남성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하는 여성들은 같은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면서 오히려 적대적 성차별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무력화 효과는 우익 권위주의가 높은 여성들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집단적 안전과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위협이나 권위주의 동기가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성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청소년들은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유머라는 맥락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적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사회에서 남성우월주의의 재구축에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남성의 시선에 자연스럽게 종속되어가는 구조가 형성된다. 결국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은 청소년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긍정적인 어투로 전달되는 성차별주의의 수용을 의미하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고쳐서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및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오락프로그램 노출과 성형수술 동의 정도에 대해 중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 연구는 중개변인으로서의 작용에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연구대상자는 고등학생으로 국한시켰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서울지역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해 진행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50명씩 조사에 참여했다. 질문 내용에는 성형의지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 양가적 성차별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정도 등이 포함되었는데, 성실하게 응답할 경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질문이었다.

측정 도구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 측정은 한국형 성차별주의 척도 [K-ASI(Korean Ambivalent Sexism Scale),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를 이용했다. K-ASI는 Glick와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Ambivalent Sexism Scale)를 한국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 관련 18개 항목과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관련 18개 항목 등 총 3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관련 항목의 예는 “요사이 여성의 권익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 지나치다.” “여성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등이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관련 항목의 예는 “늦은 밤에는 남자가 여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자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견게 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K-ASI는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93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는 .91이었다.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 고등학생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enderson-King 및 Henderson-King(2005)의 성형수술수용척도(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를 이용했다. 이 척도는 3개 요인의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반응 범위는 1-6점이었다. 그 3개 요인은 ① 개인적 요인(intrapersonal factor), ②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 및 ③ 고려 요인(consider factor)이었고, 요인마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요인은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될 혜택에 관한 태도에 관한 문항들이며(예, 나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성형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적 요인은 성형수술을 받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원의 동기에 관한 문항들이며(예: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요인은 성형수술을 받을 가능성 평가에 관한 문항들이다(예: 무료로 어떤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택할 것이다.). 성형수술수용척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데(Swami,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9),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개인적 요인의 경우 .87, 사회적 요인의 경우 .88, 그리고 고려 요인의 경우는 .85였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에서 진행하는 예능·오락 장르 관련 프로그램 리스트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KBS2[안녕하세요, 승승장구, 해피투게더3, 뮤직뱅크,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유희열의 스케치북, 세대공감 토요일, 청춘불패 2, 불후의 명곡, 연애가 중계, 이야기쇼 두드림, 출발 드림팀 시즌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1박2일), 개그콘서트], MBC [놀러와, 아름다운 콘서트, TV특종-놀라운 세상,

황금어장, 천 번째 남자, 찾아라! 맛있는 TV, 쇼! 음악중심, 우리 결혼했어요, 무한도전, 세상을 바꾸는 퀴즈, 해피타임, 최강연승 퀴즈쇼Q, 섹션TV 연예통신, 일밤(승부의 신, 나가수2)], SBS(힐링캠프, 강심장, 한밤의 TV연예, 자기야, 세대공감 1억 퀴즈쇼, 고쇼, 접속! 무비월드, 스타주니어쇼 붐어빵, 놀라운 대회 스타킹, 개그 투나잇, SBS인기가요, 런닝맨, 정글의 법칙, 유&아이)가 포함됐다. 한편, 케이블TV에서는 스토리온(렛미인2,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다이어트 위), 온스타일(갯잇뷰티, 도전슈퍼모델 코리아, Get It Shape, 런어웨이 D-1), tvN(화성인 바이러스, 화성인 x-파일, 롤러코스터2), Mnet(슈퍼스타K)가 포함됐다. TV 예능·오락 프로그램 시청은 시청형식(예: 다시보기, 다운로드)과는 무관하게 지난 1개월 동안 시청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로 언론보도를 통해 외모지상주의나 연예인의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점수의 범위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0으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경우의 54점까지이었지만, 기술통계를 통해 표준편차가 ±3을 벗어났던 7사례를 제외한 결과 실제 범위는 최저 0에서 최대 35로 나타났다($M=12.30$, $SD=8.03$).

결과

우선 조사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했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r=-.13$, $p<.01$), 개인적 성형요인($r=.17$, $p<.001$), 사회적 성형요인($r=.12$, $p<.01$), 및 고려 성형요인($r=.21$, $p<.001$)하고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40$, $p<.001$), 성형 고려 요인하고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2$, $p<.01$).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3가지 성형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개인적 요인 $r=.15$, $p<.001$; 사회적 요인 $r=.26$, $p<.001$; 고려 요인 $r=.11$, $p<.01$).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상관관계

	b	c	d	e	f
TV 예능·오락 프로그램시청(a)	-.13**	.04	.17***	.12**	.21***
적대적 성차별주의(b)	-	.40***	-.06	.05	-.12**
온정적 성차별주의(c)		-	.15***	.26***	.11**
성형: 개인적 요인(d)			-	.69***	.66***
성형: 사회적 요인(e)				-	.73***
성형: 고려 요인(f)					-

* $p<.05$ ** $p<.01$ *** $p<.001$

온정적 성차별주의

먼저 남학생을 대상으로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 성형 관련 하부요인의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중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Sobel test로 살펴본 결과 (<표 2> 참조), 개인적 성형요인($p<.05$), 사회적 성형요인($p<.05$), 고려 성형요인($p<.05$)의 하부요인이 중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을 많이 할수록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성형수술에 의하여 자신이 얻게 될 혜택에 긍정적 평가를 하며(개인적 요인), 성형수술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압력요소들을 수용하게 되고(사회적 요인), 성형수술을 받을 가능성(고려 요인)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 성형 관련 하부요인의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중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표 2>에 제시했는데, 세 가지

결론 및 함의

<표 2> TV예능·오락프로그램시청,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형의지에 대한 중개변인 분석

	b	SE	Sobel test
TV예능·오락 시청	.018	.007	
→ 온정적 성차별주의	.011	.006	
온정적 성차별주의	.266	.085	1.99*
→ 개인적 성형요인	.272	.083	1.60
온정적 성차별주의	.424	.090	2.26*
→ 사회적 성형요인	.321	.088	1.64
온정적 성차별주의	.295	.085	2.07*
→ 고려 성형요인	.220	.102	1.40

주. 통계치의 상단은 남학생, 하단은 여학생의 것임
* $p < .05$

하부요인 모두 중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는 무관하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동의정도가 성형수술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한편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성형의지에 대한 중개변인의 유의미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표 3> 참조).

<표 3> TV예능·오락프로그램시청, 적대적 성차별주의, 성형의지에 대한 중개변인 분석

	b	SE	Sobel test
TV예능·오락 시청	.088	.007	
→ 적대적 성차별주의	-.002	.006	
적대적 성차별주의	.087	.084	1.03
→ 개인적 성형요인	.048	.099	-.28
적대적 성차별주의	.078	.090	.86
→ 사회적 성형요인	.153	.105	-.33
적대적 성차별주의	.040	.085	.47
→ 고려 성형요인	.070	.121	-.29

주. 통계치의 상단은 남학생, 하단은 여학생의 것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미용성형수술 의지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 성형수술 의사결정에서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수술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남녀 고등학생 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은 남녀로 분리하여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역할이 다르게 작용함을 발견했다. 남학생은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각각 성형수술동의 정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Sobel Test를 이용한 중개변인 분석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 미용성형 동의정도 간의 중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용성형에 대한 동의정도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고려 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변인 모두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중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남학생들은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을 많이 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아지게 되며, 그 결과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들은 TV예능·오락프로그램을 많이 볼수록 간접적이며 은연중에 작용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성형수술은 자신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개인적 요인), 사회적 성공을 위해 성형수술은 필요하다라는 믿음(사회적 요인),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미용성형을 받을 가능성(고려 요인)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을 많이 하는 것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고려 요인의 세 가지 모두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 정도와는 무관했다. 여학생들에게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수용정도만이 미용성형에 대한 동의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동의정도는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와 성형수술에 대한 동의정도와 무관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대상인 여고생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결과는 여고생들의 경우 TV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외모관련 설득메시지와는 독립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적인 평가와 그에 따르는 차별을 수용하고 내면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용성형에 대한 의지에 있어 남녀 고등학생들이 보여준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인 TV 시청정도 또는 드라마나 미용중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정도가 미용성형 의지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미용성형 의지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결과와는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여고생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우호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학습과 수용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남성중심주의 문화에 자신들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외모적인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들에게서 TV예능·오락프로그램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용성형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성적 소구력을 최대화하고 그를 통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이라는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TV에서 외모중심의 오락프로그램이 난무하는 것은 여고생들에게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될 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느끼면서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자신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부각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미용성형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미용성형은 다분히 TV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성공적인 미용성형 체험이나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자라나면서 겪어온 성적 소구 관련 다양한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성적매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항상 민감해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TV연예·오락프로그램 시청 및 미용성형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첫 시도로 미용성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용성형열풍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자 (1985). 성형수술해볼까? *경향신문* (1985년 7월 15일자 6면).
- 박두원 (2014). 필러성형으로 '안티에이징'을 넘어 '웰에이징'으로 외모 가꾼다! *MK뉴스* (2014년 5월 8일, <http://bit.ly/1uDjBX5>)
- 박원진 (2013). 방송을 점령한 성형수술. *아시아경제* (2013년 3월 3일, <http://bit.ly/10Gs1sW>).
- 심재웅 (2008). 포르노그래피 이용이 대학생들의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 (6), 167-188.
- 심재웅, 조의진 (2009).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성콘텐츠 이용과 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 (1), 79-118.
- 손동우 (2014). 성형광고. *경향신문* (2014년 3월 27일자 30면).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

- 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구보고서 2007-17).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형진 (2008).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 (4), 480-513.
- 이상범 (2014). 해투 미모대결, 외모 콤플렉스 고백 “촬영 오는 길에 평평 울었다” 왜? *한국경제TV* (2014년 7월 18일 방송, <http://wowstar.wowtv.co.kr/news/view.asp?newsid=35401>).
- 이승록 (2011). ‘세바퀴’ 대체 어디로 굴러가고 있나? *마이데일리* (2011년 7월 6일, <http://bit.ly/10GrRSq>)
- 이승현 (2013). ‘성형미인’ 신고 달리는 서울 시내 버스. *이데일리* (2013년 7월 3일자 22면).
- 이영이 (1989). 어린이 성형수술 유행. *동아일보* (1989년 4월 14일자 9면).
- 임인숙, 김민주 (2012). 한국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의 비만 낙인 재생산: ‘빅토리’와 ‘다이어트 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 (4), 1-38.
- 허완 (2013). TV가 ‘성형’ 조장... IPTV ‘성형외과’ 불법 광고 논란. *미디어 오늘* (2013년 4월 2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77>).
- Burgess, D., & Borgida, E. (1999). Who women are, who women should be: Descriptive and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ing in sex discriminatio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the Law*, 5, 665-692.
- Crockett, R., Pruzinsky, T., & Persing, J. (2007). The influence of plastic surgery “reality TV” on cosmetic surgery patient expectations and decision making.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120, 316-324.
- Franzoi, S. (2001). Is female body esteem shaped by benevolent sexism? *Sex Roles*, 44, 177-188.
- Git, A. (March 17, 2014). Could selfies be pushing more Americans to plastic surgery? (CBS News) <http://www.cbsnews.com/news/could-selfies-be-pushing-more-americans-to-plastic-surgery/>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Greenwood, D., & Isbell, L. (2002). Ambivalent sexism and the dumb blonde: Men’s and women’s reactions to sexist jok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41-350.
- Hall, C., & Crum, M. (1994). Women and “body-isms” in television beer commercials. *Sex Roles*, 31, 329-337.
-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 137-149.
- Hosoda, M., Stone-Romero, E., & Coats, G. (2003).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job-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Personnel Psychology*, 56, 431-462.
- Jost, J., & Kay, A. (2005). Exposure to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gender stereotypes: Consequences for specific and diffuse forms of system jus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8, 498-509.
- Katzmarzyk, P., & Davis, C. (2001). Thinness and body shape of Playboy centerfolds from 1978 to 1998.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5, 590-592.
- Malkin, A., Wornian, K., & Chrisler, J. (1999). Women and weight: Gendered messages on

- magazine covers. *Sex Roles*, 40, 647-655.
- Mills, J., Polivy, J., Herman, P., & Tiggemann, M. (2002). Effects of exposure to thin media images: Evidence of self-enhancement among restrained eat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87-1699.
- Orbach, S. (2009). *Bodies*. New York: Picador (St. Martin's Press).
- Reid, A., & Malone, P. (2008). Plastic surgery in the press.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 61, 866-869.
- Sibley, C., Overall, N., & Duckitt, J. (2007). When women become more hostilely sexist toward their gender: The system-justifying effect of benevolent sexism. *Sex Roles*, 57, 743-754.
- Swami, V.,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9).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Body Image*, 6, 7-13.
- The Economist (2011, January 26). *Plastic surgery in South Korea: A popular look*. <http://econ.st/jEsm55>
- The Economist (2013, April 26). *Daily chart: Plastic makes perfect*. <http://econ.st/liQcmWg>
- Viki, T., & Abrams, D. (2002). But she was unfaithful: Benevolent sexism and reactions to rape victims who violate traditional gender role expectations. *Sex Roles*, 47, 289-293.